# 한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속도…요금체계도 손본다

## 2030년까지 1단계 진행 목표…25개 건설사업 중 7개 1년 앞당겨

## 지역·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 추진…주민 갈등 해법 과제로 남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호남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개편 등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 12일 한전 등 산하 에너지 분야 21개 기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5개 건설사업 중 7개 사업을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사업비만 1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내 최대 규모이자 국내 최장 길이의 초고압 직류 송전(HVDC)망을 자랑한다. 해당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2030년까지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건설사업을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또는 국민펀드 조성 등 자본 마련 방안을 검토한 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송배전망 시설 확충 시 주민 또는 지자체와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소통 확대' 외 별다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전은 또 '지산지소(地産地消) 계획입지' 추진 계획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지산지소는 전력 등 에너지 사용처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한전은 지산지소 개념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우선 지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계획입지제'를 합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올해 지역별·시간별 전기요금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부 차관은 이날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전원 구성이 변화한 지금, 전력이 과잉·결핍 공급되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를 구성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며 "올해 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에 대해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적은 평일 밤에는 요금을 높이는 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한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업무계획을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물 호스를 이용해 영광 오동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모내기철 물 걱정 NO"…농업용수 확보 총력

## 농어촌공사, 현장 맞춤 관리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일단 올봄 모내기 철엔 농업 용수 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117.9% 수준으로 많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도 지난 12일 기준 79.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또 갑작스러운 국지적 가뭄 등에 대비한 대응 태세도 갖추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내기 철 농업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영광 오동저수지, 강릉 오봉저수지 등 저수지 62곳을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물 부족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인근 하천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현장 맞춤형 용수 확보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 대책 TF'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기상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가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영농 급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인의 영농 여건, 국민 식량 공급 등 중요 안건의 핵심 요소"라며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한발 앞선 용수 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KDN 본사에서 지난 12일 열린 'AI·SW 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식' 참여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전KDN 제공〉

# 한전KDN, AI·SW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산·학·관 협력 강화

## 순천대 재학생 20명 교육…블록코딩·로봇 활용 코딩교육 등 시행

한전KDN은 지난 12일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본사 교육관 비전룸에서 '2026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년 AI·SW 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오는 23일까지 전남교육청, 순천대 SW중심대학사업단, 한전KDN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초·중·고교생 대상 SW교육 의무화 정책에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SW중심대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교육 과정을 수료한 대학생 강사가 다시 SW코딩 교육 관련 기부 활동을 펼치는 선순환적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한전KDN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 산·학·관 협력 오픈캠퍼스 교육과정을 도입한 이후 매년 협력 학교를 바꿔가며 지역사회 SW중심대학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순천대 SW교육을 주관하는 학과 재학생 20여명의 신청을 받아 90시간 과정으로 블록코딩, 피지컬 컴퓨팅, 언플러그드 코딩, 텍스트 코딩, 교수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2~14일 한전KDN 교육관 합숙 교육을 통해 코딩지도사 자격과정, 로봇 활용 코팅교육을 시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 LS전선과 케이블 상태판정 기술 사업화 계약

##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협력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국제 최대 기술 박람회 'CES 2026'에서 LS전선과 한전의 지중·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인 'SFL-R(실시간 탐지 기술)'의 사업화 협력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구본규 LS전선 사장 등 양사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한전이 자체 개발한 SFL-R 기술은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기법을 통해 고장과 동시에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하는 신기술이다. 현재 '제주 #1 HVDC(초고압직류송전)', '제주 #3 HVDC', '북당진-고덕 HVDC'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실시간 전류 신호 측정 방식의 장거리 HVDC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이다.

기존 SFL 기술과 달리 대상 선로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고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기술 상용화 시 더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S전선은 이번 계약으로 자체 운영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한전의 SFL-R 기술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LS전선 해저케이블 입찰 시 한전의 SFL-R 기술이 탑재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출시와 진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SFL 분야를 넘어 초전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한파에도 1월 3주차 전력수급 '안정적' 전망

## 2주차 예비력 13.6GW 기록

새해들어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난방 등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력 수급은 일단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1월 2~3주차 전력 수급 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1월 2주차(5~9일) 전력 수요량은 83.3~85.4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전력 수요량은 1월 1주차에 80GW를 넘어선 뒤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일자별로 지난 5일 83.3GW, 8일 85.4GW로 집계됐다. 2주차 전력 공급력은 99.8~101.2GW로 예비력 13.6GW를 기록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지속됐다.

이어 1월 3주차(12~16일)에는 85.1~87.3GW의 전력 수요량이 예상된다. 공급력은 101.9~104.8GW로 예비력 15.0~19.7GW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전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